

- 주요 뉴스: 2022년 미국 달러화 전망, 강세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 약화 가능성
 - 글로벌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, 역대 최대치. 사망자 수는 적은 편
 - 유로존 11월 기업대출, 전년동월비 2.9%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세
 - 중국 베이징북 인터내셔널(CBBI), 4/4분기에 기업은 투자와 차입에 소극적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 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상승[+7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거래 감소한 가운데 경기회복 지속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
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관련주 약세 등으로 0.1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3% 상승, 0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추가 봉쇄조치 가능성 낮다는 전망 등이 배경
 독일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5.7원, -1.8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2/29일	12/28일	전일대비			12/29일	12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793.1	4,786.4	0.1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5%	1.48%	7bp
	유럽	487.98	488.50	-0.11%		독일	-0.18%	-0.24%	5bp
	중국	3,597.0	3,630.1	-0.91%	CDS 5y	한국	21bp	21bp	0bp
	일본	28,907	29,069	-0.56%		중국	41bp	41bp	0bp
	한국	2,993.3	3,020.2	-0.89%	위험 지표	EMBI+	-	392	-
환율	달러지수	95.91	96.20	-0.30%		VIX	16.95	17.54	-3.36%
	유로화	1.1349	1.1310	0.34%		WTI유	76.56	75.98	0.76%
	엔화	114.95	114.82	-0.11%	원자재	구리	440.2	442.0	-0.41%
	위안화	6.3678	6.3686	0.01%		금	1,804.7	1,806.2	-0.08%
	원화	1,186.5	1,188.0	0.1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2022년 미국 달러화 전망, 강세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 약화 가능성

- 대부분의 투자은행은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미국 달러화 강세를 예상. 다만 달러화 매수 포지션 규모가 이미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,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화는 제한적인 강세 혹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
- JP모건의 Arjun Vij는 역사적으로 달러화가 금리인상에 6개월 선행하여 강세를 나타냈는데, 현재 달러화 가치가 이미 연준의 2~3회 금리인상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
- 모건 스탠리의 David Adams도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당초 예상을 하회하여,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상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면, 이 또한 달러화 강세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
- 미래에셋의 Malcolm Dorson은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.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,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달러화도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부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글로벌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, 역대 최대치. 사망자 수는 적은 편

- AFP에 따르면, 12/22~28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655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. 다만 사망자 수는 6450명으로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

■ 미국 11월 잠정주택판매, 전월비 2.2% 감소로 전월(7.5%) 및 예상치(0.5%) 하회

-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(NAR)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주택재고 부족과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가격 상승 등에 기인. NAR의 Lawrence Yun은 당분간 주택가격의 큰 폭 하락 혹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지만, 재고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 11월 상품 무역수지,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. 소비재 수입 급증 등이 원인

- 상무부에 따르면, 같은 달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978억달러로 전월비 17.5% 증가. Oxford Economics의 Nancy Venden Houton은 오미크론의 확산이 지속된다면 소비재 수입의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

■ 로이트홀트 그룹, S&P500지수는 내년 조정 발생 전에 5000 달성 가능

- 짐 폴슨 수석 투자전략가는 팬데믹 사태 완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등으로 상반기 S&P500 지수가 5000에 이를 것으로 전망. 다만 하반기부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.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%를 하회한다면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고 언급

■ 유로존 11월 기업대출, 전년동월비 2.9%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

- 같은 달 역대 기업대출 증가율이 전월(2.5%) 수준을 상회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. 이는 금년 초의 점진적인 둔화와는 다른 모습. 같은 달 가계대출도 전월비 4.2% 늘어 전월(4.1%) 대비 높은 증가율을 시현

■ 중국 베이징북 인터내셔널(CBBI), 4/4분기에 기업은 투자와 차입에 소극적

- 최근 차입비용이 증가하면서 해당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. 부문별로는 서비스 부문의 투자와 차입이 감소한 반면, 소매 및 제조업은 차입이 증가.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격차는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
- 한편 정부는 중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부 소득세 완화 조치를 연장할 방침. 이번 조치로 연간 1100억위안 규모의 감세 혜택이 예상

■ 미국과 러시아, 12/30일 양국의 정상은 전화 회담에 나설 예정

-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외교 관련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발표.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나토(NATO) 군의 동부지역 영향력 강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발언

■ 러시아 부총리, OPEC+는 미국의 증산 요구보다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가 중요

-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는 OPEC+가 중기적 측면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증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2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1월 도매재고(전월비): 1.2%, 10월(2.5%), 예상치(1.3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12월 시카고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중국 경제,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수출 둔화 등이 저해 요인이 될 전망 - 블룸버그**
(China's Stable Economy Clouded by Property and Export Outlook)
 - 최근 중국 경제는 기업신뢰 개선, 자동차 판매 회복 등으로 완만한 확장을 유지.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, 대외수요 둔화, 운송비 및 임금 상승압력 증가 등은 향후 경제 전망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12월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, 이러한 추세가 2022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. 또한 4대 주요도시의 주택판매는 감소하고 있으며, 건축수요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철근재고가 감소
- **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, 비용부담과 무역 차질 등으로 고전 - The New York Times**
(What a Year of Brexit Brought U.K. Companies: Higher Costs and Endless Forms)
 - 영국 기업은 브렉시트 이후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세금 증가 등에 직면. 영국 무역정책연구소는 이와 관련 440억파운드 무역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.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대내 규제 준수 절차는 어려움을 가중
 - 예산책임청(OBR)은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화 된다면, 브렉시트 이후 자국의 GDP가 4% 감소할 것으로 추산. 아울러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영국 경제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
- **미국 빅테크의 인수합병, 과거의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 실효성에 집중 - 블룸버그**
(Tech Companies Are Big. They Are Not Conglomerates)
- **코로나 및 인플레이션 대응, 정치적 양극화 방식 대신 유연한 접근이 요구 - WSJ**
(Covid-19, Inflation Make a Mess Out of Predictions)
- **미국 일부 헤지펀드,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양호한 경제성장 지속을 전망 - Financial Times**
(Hedge funds bet against market pessimism on US economic outlook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